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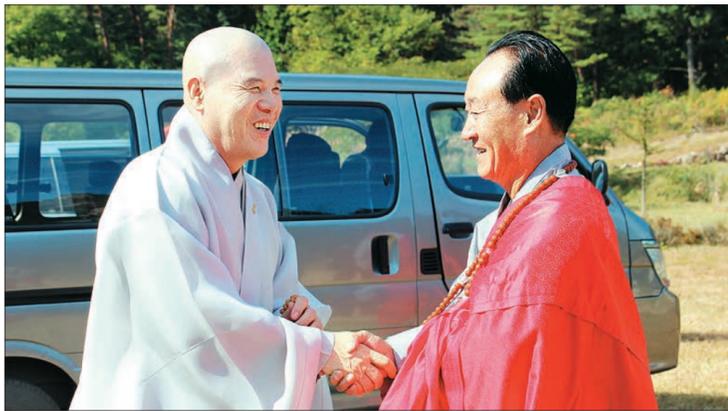
남북불교도 금강산서 '통일' 발원

15일, 신계사 복원 8주년 기념
조계종-조불련 합동법회 봉행
8·25 남북 고위급 합의 이후
첫 공동행사...민간교류 신호탄

남북불교도들이 남북불교교류의 상징인 금강산 신계사에서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발원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스님)와 북측 조선불교도련맹(위원장 지성스님)은 지난 15일 금강산 신계사 대웅보전에서 '신계사 낙성 8주년 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남측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민주본 본부장 지홍스님, 전 호계원장 자광스님, 중앙승가대 총장 원행스님 등이, 북측에서는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지성스님(강수원), 부위원장 연암스님, 서기장 서명스님(차규철), 신계사 주지 진각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봉행된 합동법회는 8·25 남북 고위급 합의 이후 처음 진행되는 민간차원의 공동 행사로, 이날 법회를 시작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해 남북교류가 줄을 이을 예정이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신계사는 소실된 불교문화유산을 남북이 힘을 합쳐 복원해낸 뜻 깊은 불사였을 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역사와 정신을 복원해 화해와 통일의 큰 걸음을 이끌게 한 역사의 실천이기도 하다"며 "이번 법회를 계기로 우리 마음처럼 금강산 길 이 다시 열리길 바라며 며칠 후 있을 이산가족 상봉이 그리운 얼굴을 마주보고 평생 가슴으로 흘렸던 눈물을 어루만지는 뜻 깊은 만남이 되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조불련 위원장 지성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지성스님(오른쪽)이 지난 15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열린 '신계사 낙성 8주년 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에 참여하기 전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번 만남은 지난 3월 중국 심양에서 열린 최고위급 대표자간 회담 이후 두 번째이다.

은 "신계사 복원은 명실공히 남과 북의 불교도들이 불심으로 합심해 이뤄낸 결실로, (신계사 복원) 착공 첫 삽을 함께 뜨고 준공 테이프를 함께 끊으며 우리 모두 헤아릴 수 없는 한 민족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민족의 화합과 통일은 우리 겨레의 지향점이기에 불교도들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앞장서 나가야 하며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신계사 순례길을 열어 불법이 넘치는 통일도량을 이뤄가야 한다"고 발원했다.

이날 남북 불자들은 6·25 때 전소(全燒)됐던 신계사를 복원하기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았던 것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평화통일을 기원했다.

전준호 대한불교청정회장과 리현숙 조불련 중앙위원회 전국신도회 부회장은 공동발원문

남독을 통해 "오랜 세월 분열의 고통 속에 몸부림치던 우리 겨레는 공동선언 발표로 반목과 대결에서 벗어나 화해와 단합의 새 시대를 열고 민족끼리의 가치 밑에 조국통일을 위한 길로 힘차게 나가게 됐다"며 "남과 북의 불교도들은 불교공동선언을 조국통일의 지등, 법등으로 삼고 이 땅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용맹 정진하겠다"고 서원했다.

이날 법회는 타종, 삼귀의, 반야심경, 헌화, 신계사 복원 경과보고, 남북 공동발원문 낭독 등으로 약 1시간가량 여법하게 봉행됐으며, 남북불교도들은 법회를 마친 뒤 금강산 구룡연을 오르며 덕담을 나눴다.

▶관련기사 4면
금강산=이경민 기자 kylee@bulgyo.com

"총본산 성역화, 국민 모두의 불사"

11월 16일 '모연의 밤' 개최
1통화 5천원 060-800-3690
ARS 후원전화·모금계좌 개설

한국불교 역사상 최대의 불사가 될 총본산 성역화 사업의 원만 회향을 위한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모연의 밤'이 오는 11월 16일 오후 6시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성역화 불사 모연의 밤은 한국불교를 상징하는 공간이자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이 될 성역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역화 불사를 위해 종도들의 원력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역사문화관광자원조사사업추진위원회)는 약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모연의 밤을 앞두고 성역화 불사에 대한 의미를 알리고 종도들의 동참을 유도해 나가는 일에 집중하는 등 차질 없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성역화 불사가 불자들의 정성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지난 9월 덕숭총림 수덕사에 열린 전국본사주지협의회 제41차 회의에서 모연의 밤에 대해 보고하며 교구본사 차원의 동참을 당부했으며, 전국 주요 사찰을 대상으로 한 모연에도 집중하고 있다. 성역화

사업 홍보와 불자들의 심시일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새롭게 ARS 모연 후원전화(060-800-3690)도 개설했다. ARS 후원은 1통화에 5000원으로 누구나 손쉽게 동참할 수 있으며, 불사기금 후원 계좌(농협 301-0160-9713-71, 국민은행 023501-04-221144)를 통한 동참도 가능하다.

이처럼 성역화 불사 기금 모연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전국 사찰의 동참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위원회 현판식 이후 처음으로 청도 운문사가 3억원을 쾌척하며 정성을 보탠 것을 시작으로 지난 9월 제25교구본사 봉선사와 서울 청룡사가 각각 2000만원을 전달하는 등 기부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원로의원 세민스님이 불사기금 동참의 뜻을 밝혔으며, 서울 흥천사를 비롯해 한마음선원, 포항 관음사, 시흥 법연사, 진주 삼선암 등의 사찰들도 불사 기금 모연에 수희 동참하고 있다.

추진위원회 상임부위원장 혜총스님은 "불교 역사와 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총본산 성역화 불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특히 스님과 불자들이 정성이 성역화 사업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종도들의 많은 동참이 필요하다. 11월 16일 성역화 불사 모연의 밤에도 많은 관심과 정성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태규 기자 che11@bulgyo.com



성전스님의 행복해지고 싶을 때

혼자 사는 삶

도반의 상좌 스님이 큰 절 위 토굴에 살게 되었다고 인사를 왔었습니다. 스님이 참 작고 여러개 생겨서 토굴에 살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 깊고 큰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토굴에서 혼자 어두운 밤을 보내기에는 무리일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차마 나의 근심을 입 밖으로 드러낼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스님은 한 번 토굴에 올라간 후로는 큰 절에 내려오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녀 달이 지나도록 나는 스님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날 불현듯 궁급하기도 해서 아침 공양 후 스님이 살고 있는 토굴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큰 절에서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토굴이었습니다.

맘을 훑치며 나무 그늘 아래 자리한 평상에 앉아 있자니 스님이 나왔습니다. 스님은 나무를 하고 이제 부엌에서 아침 공양을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평상에 앉아 위

를 쳐다보았습니다. 낙엽이 평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대나무로 삼을 대고 비닐 천막으로 지붕을 만들어 놓은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스님은 여름 얼마동안은 이 평사에서 정진하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마당에는 장작이 가지런하게 들쭉 쌓여 있고 바닥엔 풀 하나 없이 정갈했습니다. 한 쪽에는 밥을 일구어 채소도 일구고 방울토마토도 심어 놓았습니다. 스님은 여름 내 손수 경작한 야채로 살았던 것입니다. 스님은 밥에서 방울토마토 몇 개를 따와서 먹기를 권했습니다. "오직 이슬만 먹어 키워요." 방울토마토의 맛은 가히 일품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맑고 단 이슬의 맛이었습니다. 스님은 혼자 살아보고 싶었고 살아보니 정말 좋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지리산이 온통 스님의 것이라고.

혼자서도 외롭지 않은 사람을 나는 수행자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스님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훌륭한 수행자입니다. 보기 하고 틀리게 스님은 온통 지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위대한 힘은 순수와 무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울토마토의 단 맛이 입 속에 가득 고이는 산 중의 아침이었습니다. 남해 염불암

10·27법난 35주년 기념법회
27일, 미술전 시상식도 열려

조계종 총무원이 오는 27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10·27법난 제3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국가 권력에 의해 탄압 받은 근현대 불교계 최대 수난사인 10·27법난의 의미를 되새기고 3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법난 피해자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다. 법회는 다큐멘터리 영상 상영, 기념사 등으로 진행되며, 이날 법회에는 법난의 진상을 알리고 아픔과 상처를 공유하기 위한 '10·27법난 2015년 미술전' 시상식도 함께 열린다.

이경민 기자 kylee@bulgyo.com

'종단화합 특별법 제정' 공청회 2면
'대각회 특별교구 지정' 입법예고 3면

선림원지서 '통일신라시대 금동불' 출토

높이 50cm... "동 시대 최고"

통일신라시대 절터인 양양군 '선림원지(禪林院址)'에서 통일신라시대 금동불(사진)이 출토됐다. 양양군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한빛문화재연구원과 함께 발굴조사 중인 양양군 미천골 내 '선림원지'에서 9세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불상을 발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출토된 금동불은 선림원지의 승방(스님들 수행공간)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굴됐다.

조사단에 따르면 이 금동불은 높이 50cm(불상 높이 약 40cm) 이상으로 현재까지 출토지가 분명한 통일신라시대 금동불상 중 가장 크기가 큰 불상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병을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있는 것과 달리 고리를 손에 쥐고 있는 최초의 불상이다. 또 국내 금동불상 가운데 광배와 불상, 대좌가 모두 남아 있어



그 예가 드물다.

조사단은 "현재까지 선림원지에서 출토된 불상과 같거나 비슷한 크기의 불상은 신라 수도였던 경주에서도 발견된 적이 없으며, 당시 불교계에서 선림원의 위상이 매우 높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불상 양식과 대좌 특징 등으로 미루어보아 9세기 초 전후 경주 지역에서 제작돼 선림원지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사단은 "조각솜씨가 뛰어나고, 불상 크기와 상태 등으로 보아 보물급 문화재로도 손색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실됐던 '보물 제447호'인 선림원지 부도의 '육개석'도 불상과 함께 출토됐다. 홍다영 기자

www.hwadamsup.com
☎ 031-8026-6666

올 가을, 화담숲에서 몸과 마음을 위한 휴식을..

숲속산책길2

단풍나무원

약속의 다리

원양연못

위치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278
(중부고속도로 곤지암IC에서 5km)

운영시간 08:30~17:30 (입장 마감시간 16:30)
※ 일몰시간에 따라 운영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체예약 02-6924-5150 jjiyy@serveone.co.kr